

“코로나 확진 학생 · 학교 보호해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범죄자 낙인 안돼... 심리적 안정 확보해 줘야”

지난 17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해당 학생과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감염 의심이 상당히 드는 경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

을 때에는 사회적·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염됐는데, 그것을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낙인을 찍어 버린다”면서 “해당 학생이 받을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클 것이다. 심리적 안정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확진 학생은 물론 해당 학교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까지 교육청과 교육감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확진받은 학생이 치료와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괴롭힘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아이들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 잘 자고 잘 먹는 것,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 마스크 사용의 적정성 등 기본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현규 고광휘 김형대 장효람



조창근 박준배 강군석 고종복

전북교육청, 557명 인사 단행

승진 117명 · 전보 290명 · 신규임용 14명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승진 117명, 전보 290명, 정년(병예)퇴직 70명, 신규임용 14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행정국장인 이현규 부이사관(현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에 고광휘 부이사관(현 행정국장)이 전보 발령됐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형대 서기관(현 예산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또한,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장효람 서기관이 전보 발령 됐으며,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조창근 사무관 예산과장에 박준배

사무관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강군석 사무관, 전북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고종복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2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농업계고 FFK 대회 오늘

제49년차 전라북도 영농학생 전진대회가 23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FFK전라북도지부,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농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지난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업교육에 대한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농생명분야 우수 인재 육성과 학생들에게 지도·협동·과학성을 키워주고자 매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 대회는 농업 지식·기술을 뽐내는 전공경진, 실무능력을 겨루는 실무경진, 경영 능력 및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이수, 글로벌리더십 FFK 골든벨 등 5개 분야에 걸쳐 치러진다.

이날 각 학교 FFK 전진대회 대표 200여 명이 참여해 전공지식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1등급(금상) 19명과 2등급(은상) 29명에는 전라북도교육감상을, 3등급(동상) 50명에는 지부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이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2일 (주)제논전장, 주식회사 대인세이프티, (주)전희이엔지, 렉스피아(주) 원주공장, (주)오디텍 등 5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 산업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 신 산업분야’ 여성인력으로 채운다

성장동력산업 제조인력 직업교육훈련 일자리협력망회의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2일 미래 신 산업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주축으로 지난해 12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과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주)제논전장, 주식회사 대인세이프티, (주)전희이엔지, 렉스피아(주) 원주공장, (주)오디텍 등 5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22일 시작으로 현장교육을 포함 120시간 운영되며, 훈련생 대부분 1년 이상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구직 희망 여성으로 40~50대가

전체 훈련인원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협력망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자동차용품 제조기업 대인세이프티 정원찬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하반기 제조업 정상화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현장교육에 참여한 훈련생의 경우 현장면접을 통한 직업 일자리 매칭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윤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직무소양 및 취업역량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도 수요와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여성 경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새일 여성 인턴(인턴참여자 60만원)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과의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협약 체결로 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월 3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063)254-36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www.jjmaeil.com

청정바이오산업, 전북대에 2300만원 상당 퇴비 기탁

장수에서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유)청정바이오산업 전경범·유순희 대표는 22일 2300만 원 상당의 조경용 퇴비를 전북대에 기탁했다.

(사)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전경범·유순희 대표를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대학에 보내준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

전경범 대표는 “저와 자녀들까지 전북대가 가족이 되니 가족 간 공명점을 공유할 수 있고 농생명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적 호기심도 나눌 수 있어 매우 좋다”며 “전북대 가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대학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기쁜 마음”이라고



김동원 총장은 “우리 전북대와의 소중한 인연도 감사한데, 이렇게 대학을 위해 큰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학생들의 터전이 되는 대학 캠퍼스가 맑고 푸르러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 kktv | NAVER TV | Daum | NAVER |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